

제29대 국교련 활동 사항 보고

1 제29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 회의록

- 일 시 : 2026년6월 19일(금) ~ 20(토)
- 장 소: 국립대학교 정보융합관 203호 중회의실
- 참 석 자: 총 39개교 중 참석 19개 회원교, 위임 10개교(배석 13명)
- 안건 토의 및 의결 사항

1. 활동보고

가. 제2차 교연비 수당화 TF 회의

- 국교조에서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교연비 수당화 합의를 재확인했고, 국교조,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재부 4주체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음. 4주체 협의체가 구성되면 국교조와 함께 국교련도 동참하면 될 것임
- 국교조가 교육부를 통하여 교수수당 요구를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접수하라고 요청했음 - 이번 교수수당 지급 요구는 세 번째로 만약 인사혁신처가 거부한다면 앞으로 3년간 교수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국교련, 거국련, 국중련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 성명서 발표는 보류함
- 홍창남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고등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현 교수,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용련 교수(외대 교육학과) 면담을 추진함

나.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

- 국립경국대의 경우 공공부총장은 외부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공공부총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단서를 넣고자 하며
-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규제 특례가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없이 경국대 총장이 공공부총장을 외부인을 임명할 수 있고 순천대는 이미 임용된 사례가 있어 교육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도 경국대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경국대 교수들과 구성원의 입장을 파악한 후 대응하기 위해 3차 회장단 회의에서 경국대 입장을 듣기로 함
- 경국대 문제가 국교련 회원교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있고 경상북도의 고위공무원이 낙하산으로 경국대 부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방지해야 함
- 국립창원대를 과기대로 만들기 위해 창원대 총장과 당선된 경남도지사가 안을

내고 진행하고 있으며 총장은 통합 창원대 이후 교수회장처럼 선거를 하지 않고 임기를 4년으로 마음대로 정했음

- 총장의 발전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얘기할 필요 있어 제3차 회장단 회의 때 창원대 상황을 설명듣고 추가 논의하기로 함
- 국립군산대에서 학생이 수업 중 쉬는 시간에 교수 연구실로 따라가서 소주병으로 교수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 교수는 입원한 상태이며 앞으로 강단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교수의 강의실에서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됨
- 군산대 교수회장이 군산대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여 국교련과 공유하고, 교육부에 교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학생회의 성명서 발표가 있으니, 교수단체에서도 성명서 발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공동회장단에서 동의하는 회장이 없어서 제안은 부결됨.

2. 안전 토의

가. 제28대 국교련 감사는 제28대 국교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4일 (개최지 국립경국대) 제4차 회장단회의 때 감서보고서를 제출함

나. 국립경국대 사태에 대한 대책-외부인사를 대학 주요 보직자 및 특임 교수 등으로 임명되는 문제

- 1) 학내에서는 임명 심사 조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학칙에 조례 적용 기간 적용을 요구함
- 2)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외부 기관이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함
- 3) 국교련에서 경상북도에 국립경국대에 대한 압력행사에 대하여 항의 공문을 발송함

다. 국립창원대 사태에 대한 대책

- 1) 국교련에서 연대 성명서를 발송함
- 2) 창원대 교수회에서 진행하는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에 공문으로 처리를 요구함

라. 군산대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에 대한 대책

TF를 구성하여 교권 존중 준칙을 만들어서 각 대학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함

마. 교연비 문제

헌법 소원 TF를 구성하여 대처함

바. 국립대학법 제정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립대학법안을 다듬은 후 4차 회장단 회의 때 논의함

<제29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 사진>

